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에 나타나는 문학적 젠더담론으로서의 세대담론*

김륜옥 (성신여대)

I. 문제 제기

‘세대’ 개념은 오랫동안 출생 계보학적으로 이해되었고, 흔히 부계에 따라 30년 간격으로 나누어지곤 했다. 물론 그런 간격은 각 사회나 문화권에서, 또한 그 안에서도 시대별로 상이한 결혼 및 출산 연령으로 인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후 서구/독일에서 문화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낸 ‘68세대’처럼 특정한 연령층을 넘어서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마찬가지로 ‘x세대’나 ‘n세대’ 등 빠르게 등장하고 확산되는 근래의 ‘세대들’은 거의 항상 세계적인 현상이거나, 더욱이 기계의 개발 순서에 따라서도 세대 명칭이 사용되면서 포괄적인 세대 개념 및 간격을 확정하기란 사실 상 불가능하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여러 세대에 걸친 공공사업과 복지비용 분담이 거론되고 있는 현실만으로도 세대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매우 긴급해지고 있다. 하지만 세대의식이 개인의 현실 체험에 따라 형성되는지, 혹은 그가 속한 사회(문화)적 집단의 공동 체험의 결과인지에 대한 확실한 논거조차 아직 없다. 동일한 사회(문화) 및 시대 배경에서도 왜 개인마다 서로 다른 세대의식을 갖는지, 또 신세대의 성향이 구세대의 성향에 비해 삶의 방식에서 반드시 진보적인지, 그리고 ‘세대문제’ 내지 ‘세대갈등’이 국가적 및 문화적 특수 여건에 의해 조성되는지, 혹은 그보다는 범세계적인 양상을 띠는지 등등은 여전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 이 논문은 2012년 후기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요컨대, 세대 개념은 “역사적인 기본 개념 ein geschichtlicher Grundbegriff”¹⁾으로서 인류의 문화 형성에 크게 작용해왔고, 또 각 시대마다 다르게 파악되어왔다.²⁾ 최근까지 세대담론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 개념은 20세기 초에 독일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이 『세대의 문제』³⁾에서 정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여러 면에서 특히 예민한 청소년기에 역사적·사회적으로 두드러지는 일련의 사건을 공통으로 겪은 사람들이 일정한 인식 및 행동 방식을 바탕으로 ‘실제의’ 세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복합적인 의미 단위로 이해된 세대 개념은 계층이나 인종, 또 최근에 이르러 젠더와 함께 사회적·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드러내는 내적 및 외적 움직임의 동질성 혹은, 이질성을 설명하는 주요 도구로서 “학문적인 기본개념의 eines wissenschaftlichen Grundbegriffs”⁴⁾ 위치에 올랐다. 세대의식이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된 즉, 일정한 소통 과정에서 ‘수행되는’⁵⁾ 것이라는 견해도 이와 맥락이 닿아 있다. 이때 세대담론의 기본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특정한 ‘세대’에 속하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다소간 통일성을 띤다는 점이고, 또 그것이 전통 내지 기존 세대의 것을 계승하거나 단절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세대담론은 주로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범주에서 다루어져 왔다. 미학적 내지 문학적 영역에서도 그 논의가 적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⁶⁾ 실제로 세대문제나 세대갈

1) U. Jureit, Generation, Generationalität, Generationenforschung. In: Docupedia-Zeitgeschichte, 11.2.2010, <http://docupedia.de/zg/Generation>, S. 1.

2) Dazu O. Parnes/ U. Vedder/ S. Willer, Das Konzept der Generation. Eine Wissenschafts- und Kulturgeschichte. Frankfurt/M. 2008.

3) K. Mannheim, Das Problem der Generationen. In: Ders., Wissenssoziologie. Auswahl aus dem Werk, hrsg. v. Kurt H. Wolff. Neuwied 1964[1928], S. 509-565.

4) U. Jureit/ M. Wildt (Hg.), Generationen. Zur Relevanz eines wissenschaftlichen Grundbegriffs. Hamburg 2005; 최근에 발간된 한국어 번역서로, 올리케 유라이트·미하엘 빌트 엮음, ‘세대’란 무엇인가? 카를 만하임 이후 세대담론의 주제들. 한독젠더문화연구회(박희경 외) 옮김, 한울 2014.

5) Vgl. B. Bohnenkamp, Doing Generation. Bielefeld 2011.

6) 문학학, 사회학 및 역사학적 관점의 최근 논문집으로는, A. Kraft/ M. Weißhaupt (Hg.), Generationen: Erfahrung - Erzählung - Identität. Konstanz 2009; G. Lauer (Hg.), Literaturwissenschaftliche Beiträge zur Generationsforschung. Göttingen 2010.

등은 문학의 주제, 소재, 모티프로서 고대신화에서부터 최근의 각 장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등장해왔다. 이것은 세대문제가 삶을 구성하고 전수하는 과정에서 매우 두드러지는 요소임을 반증하거니와, 개인의 정체성 및 개성을 설계하고 표현하는 장으로서의 현대문학에서 더욱 실존적이고 내밀한 카테고리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헤르만 헤세(1877-1962)는 자아정체성 형성기의 삶과 세대문제의 연관성에 대해 누구보다 지속적이고 깊이 있게 천착하는 작품을 많이 남겼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독실한 신교도 집안 출신으로서 세기 전환기의 엄격한 기성 교육체제에 따라 키워졌고, 사회·국가적으로 세대문제가 한 차례 절정에 이르던 1차 및 2차 세계대전의 격랑 속에서⁷⁾ 현실 참여와 더불어 집필에 매진하며 자신이 직접 겪은 세대문제를 여러 작품 속에 형상화했다. 대표적으로 『수레바퀴 밑에서 Unterm Rad』(1906)는 국내 청소년들에게도 오래 전부터 필독서나 다름없는 작품이다. 지난 세기 초 독일의 경직된 교육체제에 대한 통렬한 비판서로 읽혀온 이 작품은 독일어권을⁸⁾ 넘어, 교육문제가 유난한 우리의 현실에서도 시사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대 개념을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젠더의식의 관점에서⁹⁾ 논의함으로써 새로운 작품해석을 시도한다. 지금까지 대개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희생자로 해석되어온 위 작품의 주인공은 문학적 젠더담론으로서의 세대담론 차원에서 보면 다분히 이중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헤세의 텍스트에서(도) 세대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남성성’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거니와, 그런 이념이 세기 전환기에 전통적인 독일 시민사회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매우 두드러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크리스티나 베닝하우스는

7) Dazu grundsätzlich: H. Mommsen, Generationenkonflikt und politische Entwicklung in der Weimarer Republik. In: J. Reulecke (Hg.), Generationalität und Lebensgeschichte im 20. Jahrhundert. München 2003, S. 115-126.

8) Vgl. A. Klahr, Wie Schüler unter die Räder kommen. Zur Aktualität der Schulkritik in Hermann Hesses Roman *Unterm Rad*. In: Kritische Ausgabe, Nr. 18 (Familie), Bonn 2010, S. 76-79.

9) Zu diesem Thema S. Weigel, Generation, Genealogie, Geschlecht. Zur Geschichte des Generationskonzepts und seiner wissenschaftlichen Konzeptionalisierung seit Ende des 18. Jahrhunderts. In: L. Musner/ G. Wunberg (Hg.), Kulturwissenschaften. Forschung – Praxis – Positionen. Wien 2002, S. 161-190.

1930년경의 세대담론과 젠더담론의 밀접한 관계를 논한 바 있지만¹⁰⁾, 그런 관계는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시기에(1871) 이미 드러나다가 세기 전환기에 한 차례 정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¹¹⁾ 이른바 세기말적인 현상으로서의 데카당스에도 다분히 ‘여성적인’ 기호가 부여되고, 그런 기호가 특히 독일에서 배타적인 시각으로 다루어졌던 것은 예의 저 ‘남성성’ 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것은 헤세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세대담론의 핵심 요소로서의 젠더문제가 동시대 작가의 경우와 비교될 때에도 확인될 것이다. 나아가 그의 문학적 세대담론에 대한 논의가 역시 다양한 세대문제와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더욱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II. 작품 속 세대의 구조와 특성

1. 이분화 혹은, 다분화된 기성세대

감수성이 깊은 청소년 한스 기벤라트가 남부독일 소도시에서 기성세대의 편향적인 교육에 따라 촉망받는 ‘우등생’으로 만들어졌다가, 점진적인 신경증에 시달리던 끝에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작품 『수레바퀴 밑에서』¹²⁾는 ‘세대문제’가 핵심요소라는 의미에서 ‘세대소설’¹³⁾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장과 교사들은 그를 못 아이들과 격리시켜 시험공부에만 매진하도록 종용하고, 시(市) 목사도 실 새 없이 ‘더 높은’ 학문을 탐구하라고 독려하는

10) Ch. Benninghaus, Das Geschlecht der Generation. Zum Zusammenhang von Generationalität und Männlichkeit um 1930. In: U. Jureit/ M. Wildt (Hg.), a.a.O., S. 127-158.

11) Vgl. 김륜옥: 성 담론 위에 꽃핀 “황금의 20년대” 및 그 전·후시기 - 젠더학적 시각에서. In: 독일어문학(2001), 제 16 집, 9권 3호, S. 25-50.

12) H. Hesse, *Unterm Rad*. In: Ders., Die Romane und die großen Erzählungen. Erster Band, Jubiläumsausgabe zum hundertsten Geburtstag von Hermann Hesse. Frankfurt/M. 1986, S. 159-329; 이하 인용문의 페이지는 본문 중 괄호 안에 표시함.

13) 여기서는 여러 세대에 걸친 서사를 담은 작품이라는 의미의 ‘세대소설 Generationenroman’ 혹은, ‘가족소설 Familienroman’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가 하면, 또 소시민적인 허영심에 사로잡힌 아버지는 이들을 무조건 신봉한다. 라틴어학교 졸업반의 한스는 허약한 체질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여 우수한 입학성적을 거둔 뒤 자기 지역에서 유일한 국가장학생으로서 마을 브론 수도원 기숙학교에 진학한다. 각 지역에서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이 모인 상급학교에서도 우등생 자리를 지키고자 애쓰던 한스는 그와 달리 매우 자의식이 강하고 반항적인 기질의 소년 헤르만 하일너와 가까워지면서 교사들과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어느덧 학교생활에 완전히 염증을 느낀 하일너가 기숙학교를 탈출해버리고, 한스는 친구의 탈출 계획을 숨겼다고 의심하는 교사들에게 시달리다 심각한 신경 증세를 보이고 고향으로 보내진다. 아들의 불명예스러운 학업 중단에 낙담하던 아버지는 그에게 기계공 훈련과정을 주선하고, 한스도 나름대로 새 환경에 적응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소심한 그와는 반대로 연애 경험이 많은 젊은 여성 엠마의 저돌적인 감정 공세에 휘둘리며 남자로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다. 어린 시절 친구 아우구스트의 기계공 도제 승급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스는 동료들과 어울리며 크게 취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강물로 빠져들어 죽음을 맞게 된다.

여기서 작품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일련의 자전적인 요소는 쉽게 눈에 띈다. 주요 사건의 발생 장소, 전개 과정 등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잘 알려져 있고, 뛰어난 재능에다 깊은 감수성을 지닌 한스와 자의식이 강한 ‘문제아’ 하일너가 헤세 자신이 겪었던 청소년기의 각기 다른 자아의 모습을 띤다는 데에도 크게 이견이 없다. 문학적 세대담론의 관점에서는, 신세대로서 자전적인 인물들이 겪는 기성세대에 대한 체험 및 자기이해가 주목을 끈다. 이런 맥락에서 기성세대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또 그 특징은 어떤 양상으로 발현되는지를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등장인물의 시각을 취하는 서술자의 묘사에서 기성세대나 ‘전통’의 상들이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라기보다, 뚜렷하게 이중적 내지 다중적인 구조를 띤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것은 자전적인 인물들 역시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모범생으로서든,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신세대 반항아로서든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벗어나거나 자유롭게 못함을 암시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크게 양분된 기성세대의 한편에는, “관습적이고 조야한 가족의식, 자신의 아들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간혹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

뉘를 기분에 einem traditionellen, barschen Familiensinn, einem Stolz auf seinen eigenen Sohn und einer gelegentlichen Schenklaune gegen Arme” 따르며 그저 “속물의 삶 das [Leben] des Philisters”(161)을 살아가는 아버지가 있다. 또 세속적인 명예와 성과주의에 집착하는 교장과 교사들, 목사 등도 속물적인 데가 없지 않다. 이들은 그 자신들이 바로 성과만을 인정하는 관습적 권위주의의 산물이지만, 스스로도 전래된 (사고)방식으로 후세대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동시에 이런 기성세대에게도 다소 긍정적인 면모가 부여된다. 가령 한스가 공부에 몰두하여 장래가 보장된 수도원 기숙학교에 입학하도록 독려하는 라틴어학교 교장 및 교사는 제자를 위해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들은 한스의 공부를 지원하고자 규칙적으로 개인교습을 제공하며 적극 헌신한다. 시의 목사 역시 한스에게 “매우 친근하게 überaus freundlich”(196f.) 대할뿐더러, “동료처럼 kameradschaftlich”(197) 수도원학교 생활 및 학과목 준비를 도와준다. 큰 변혁에 처한 현대사회에서¹⁴⁾ 제자의 성공이 교육자로서 물론 자기만족을 가져다주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서술자의 태도가 꼭 부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젊은 복습교사 비드리히는 기성의 교사들과 달리 한스의 신경 증세를 안타까워하며, 그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mit einer mitleidigen Schonung”(268) 대한다. 교사들 간에도 나타나는 이런 세대 차이는 이 작품에 내재된 비판의식이 제도적 교육기관을¹⁵⁾ 넘어, 더 근본적으로는 세대문제에 있음을 말해준다.

기성세대의 다른 한편에는, 청소년세대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는 어른이 있다. 대표적으로 구두장이 플라이크는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한스에게 (공부에만 매달리지 말고) 휴식과 산책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돌보라고 조언한다. 상

14) Dazu C. Gansel, “Ach, ich bin so müde” – Gesellschaftliche Modernisierung und Adoleszenzdarstellung in Hermann Hesses *Unterm Rad*. In: Neuer Mensch und Kollektive Identität in der Kommunikationsgesellschaft (2009), S. 25-46.

15) 이런 관점의 국내 연구로는, 김석도: 헤르만 헤세의 교육관 - 학교 교육에 대한 그의 부정적 시각과 교사상을 중심으로. In: 인문논총 (1990), Vol. 24, 73-94 면; 안진태: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에서 학교와 사회 비판. In: 독일문학(2007), Vol. 101, 127-144 면; 은정윤: 신역사주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학교와의 불화. In: 헤세연구 (2007), Vol. 18, 25-48 면.

급학교에 진학하기도 전에 못 어른들의 주문에 따라 교과목을 미리 학습(해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 ein Unsinn”이고, “게다가 죄악 eine Sünde dazu”(208) 이라고 단언하는 그는 평범한 수공업자이지만, 매우 인자하고 거의 현자의 지혜를 내비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플라이크의 신세대 친화적인 행위도 경건주의적인 그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기존의 교리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려는 사람 즉, “새로운 정신 [...], 점차 사라져가는 세대의 예스럽고 공경할만한 신사들과는 다른 정신을”(195f.)¹⁶⁾ 키우려는 목사를 “무신론자 ein Ungläubiger”(199)로 단정한다. 그가 “학문 Wissenschaft”으로서의 신학과 “예술 Kunst”로서의 신학이라는, 다시 말해 “비판과 창조 사이의 오래 되고 불공평한 싸움 der alte, ungleiche Kampf zwischen Kritik und Schöpfung”(196)에서 ‘신세대적인’ 목사의 영향으로부터 한스를 멀리 두려고 애쓰는 이유도 자신 즉, 전통세대의 생각과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려는 것이다. 플라이크는 소년 한스의 자율적인 사고나 판단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종교관을 결코 논의에 붙이지도 않는 것이다. 게다가 “현대적인 moderner”(196) 목사에게 대한 그의 노골적인 적대감은 소시민적인 편협함을 드러내기까지 한다. 결국 플라이크처럼 비교적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기성세대조차 후세대에게 독자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울 기회를 마련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분명 한계를 드러낸다.

전체적으로 기성세대의 속성은, 후세대를 자신이 지닌 사고의 전수자로 여긴다는 데에서 두드러진다. 그 중 한스의 아버지는 아들의 낙오를 받아들이지 못할뿐더러, 교장이나 목사 같은 지식인층의 기성세대도 제자가 “그들이 품은 소망의 장애물 ein Hindernis ihrer Wünsche”(269)로 보이는 순간, 그에게 쏟았던 관심을 가차 없이 거두어버린다. “한스는 더 이상 사람들이 온갖 것들을 채워둘 수 있는 그릇, 슬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다. 그에게 시간과 주의를 쏟아봤자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진 것이다.”(274)¹⁷⁾ 이에 비해 소시

16) [...] einen neuen Geist [...], einen andern, als der in den altmodisch ehrwürdigen Herren der absterbenden Generation lebte [...]

17) Er war kein Gefäß mehr, in das man allerei hineinstopfen konnte, kein Acker für vielerei Samen mehr; es lohnte sich nicht mehr, Zeit und Sorgfalt an ihn zu wenden.

민 플라이크는 훗날 한스의 역사를 ‘사고’가 아니라 교사나 목사 같은 어른들의 일방적인 욕망의 결과라고 보는 유일한 기성세대이거나, 자신의 부족함도 어느 정도 인정할 줄 안다: “당신[한스의 아버지]과 나, 우리 역시 어쩌면 여러 점에서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안 그런가요?”(329)¹⁸⁾ 한스 아버지를 향한 항의도 내포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 후자가 대답하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과오를 인지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로 남는다. 이처럼 기성세대의 구조 및 특성은 이분화 내지 다분화된 채 시종 변함이 없다.

2. 서술자 및 주요 인물의 분열된 시각

기성세대의 이중적인 내적·외적 속성과 (근본적으로) 상통하는 것이 바로 전통에 대한 헤세적인 서술자의 분열된 시각이다. 가령 한스의 고향도시는 밝은 구역과 어두운 구역으로 뚜렷하게 양분되어 있다. 한편으로 게르버 길 Gerbergasse은 “홀륭하고 착실한 기성시민들만이 lauter gute solide Altbürger” 거주하는 곳으로 소개되거니와, 그곳의 “고상함 Vornehmheit”은 다름 아닌 “교회, 고등관청, 법원, 시청, 교구청 Kirche, Oberamt, Gericht, Rathaus und Dekanat”(279)의 분위기에 비유된다. 그런 길이 “말끔한 품위를 드러내며, 도시에 어울리는 고결한 인상을 무척이나 in ihrer reinlichen Würde durchaus einen städtisch noblen Eindruck”(279f.) 풍긴다거나, 이에 따라 “친근함, 쾌적함, 밝은 빛으로 충만한 모습을 eine Fülle von Freundlichkeit, Behagen und Licht”(280) 드러낸다는 서술 등은 분명 전통 시민세계에 대한 뿌리 깊은 경의를 말해준다.

이와 같은 서술자의 입장은, “게르버 길의 반대 das Gegenteil davon”라는 “‘매 Falken’”의 길을 가리켜 “가난, 악습, 질병 Armut, Laster und Krankheit”(280)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할 때 반증된다. 여기서 삼인칭 서술자의 시각과 주인공 한스의 시각은 구별되지 않을 만큼 자주 동일하다. 기성세대에 의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던 여덟 살의 한스는 그렇게 ‘다른’ 곳의 분위기에 매료되어 통제받지

18) Und Sie und ich, wir haben vielleicht auch mancherlei an dem Buben versäumt, meinen Sie nicht?

않은 자신의 “호기심, 두려움, 양심의 가책, 그리고 모험에 대한 황홀한 예감이 뒤섞인 감정을 eine Mischung von Neugierde, Furcht, schlechtem Gewissen und seliger Abenteuerahnung”(284) 품은 채 그곳을 드나들 수 있었다. 하지만 수도원 학교에서 낙향한 뒤 “큰 실망에 이어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aus seiner großen Enttäuschung und Hoffnungslosigkeit” 도피하듯 찾아간 “그 좋았던 옛 시절 die vergangene gute Zeit”(285)의 장소는 이제 그에게 “하찮고 웅색한 인상 einen kläglichen und kümmerlichen Eindruck”(286)만 줄 뿐이다. 기성세대로 인한 상처를 위로받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고 찾아간 옛 장소의 ‘매력’은 원래 그 자체에 대한 그의 긍정을 말해주기보다, 신세대로서 꿈꾸었던 ‘다른’ 세계를 그 속에 투영함으로써 만든 허상이었던 셈이다. 자신의 세계를 찾아나가기보다 환상의 세계로 회귀하려는 주인공이 “자기가 다시 어린 아이가 될 수 [...] 없음을 daß er doch nicht wieder ein Kind werden [...] konnte”(286) 느끼며 점점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도 의외가 아니다. 그것은 기성세대를 등에 업은 채 그로부터 도망가려는 자아의 자기분열적인 모습과 다르지 않다.

서술자 그리고 주요 인물이 기성세계에 대해 드러내는 분열된 시각은 (한스가 처음으로 보게 되는) 수도원학교에 대한 등장인물적인 서술자의 묘사에서 도 확인된다.

그곳에는 분수가 흐르고 있었고, 오래되고 근엄한 분위기의 나무들이 서 있었으며, 양옆으로는 돌로 단단하게 지은 옛날 집들이 있는가 하면, 뒤편에는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는 즉, 비할 데 없이 우아하고 매혹적으로 아름다운 후기낭만주의 양식의 현관홀이 달린 본교회 정면이 보였다.(210)¹⁹⁾

뚜렷이 양분된 세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분열된 시각이 더욱 구체적으로 주인공 한스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예도 적지 않다.²⁰⁾ 한편, 한스는

19) Ein Brunnen läuft dort, und es stehen alte ernste Bäume da und zu beiden Seiten alte steinerne und feste Häuser und im Hintergrunde die Stirnseite der Hauptkirche mit einer spätmantischen Vorhalle, Paradies genannt, von einer gaziösen, entzückenden Schönheit ohnegleichen.

20) 양분된 기성세계는 헤세가 십여 년 뒤에 발표한 소설 『데미안』(1919)의 첫 장에서도 “두 개의 세계 Zwei Welten”라는 제목으로 거의 그대로 재현되고, 각 세계에 대한 서

아버지나 학교장 및 교사, 또 목사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우등생의 자리를 지키며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이어가는 입장을 취한다. 입학시험 성적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그가 수도원학교에 차석으로 합격한 내용의 지역소식지를 읽으며 반응하는 모습을 보라: “[한스는] 자랑스러움과 환희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Hans] war aber zum Zerspringen voll von Stolz und Jubel.”(194) 그의 마음을 줄곧 억누르던 것도 공부라는 과제 즉, 기성세대의 기대 자체보다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의혹과 두려움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또한 수도원의 안뜰을 둘러싼 회랑의 “고풍스럽게 은자 같은 품위와 안정감 *altertümlich einsiedlerische Würde und Ruhe*”이 “저 위쪽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의 떠들썩한 소리에 대해 희한하게 반대되는 양상으로 *sonderbar im Gegensatz zu dem oben lärmenden jungen Leben*”(214) 나타나는 상황을 한스가 호기심에 찬 시선으로 살펴보는 장면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그와는 전혀 다른 기질의 하일러조차 현실과 동떨어진 고전어 학습을 강요하는 학교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옛것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이중성을 띠는 점에서 서술자 및 주인공 한스와 유사하다. 누구보다 “자기만의 생각과 언어 *eigene Gedanken und Worte*”를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시어에 반영하고, 환상을 통해 그럴싸하게 활기에 찬 자신의 삶을 만들어내는 *seine Seele in Versen zu spiegeln und sich ein eigenes, scheinlebendiges Leben aus der Phantasie zu erbauen*” 청소년 시인 하일러도 수도원 건축물에서 “오래된 기둥들과 벽들의 아름다움 *die Schönheit der alten Säulen und Mauern*”(228)에 매료된다.

결국 한스의 내면이 점점 더 균형을 찾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다분히 복합적이다. 물론 기성세대가 그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시종일관 일방적으로 투사하는 데에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숙학교에 아들을 데려다놓은 아버지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말로써 이별을 고하는 장면은 매우 함축적이다: “그래 그럼, 넌 네 가족에게 명예를 안겨다줄 거지? 그리고 윗분들의 말씀에 잘 따를 거지? *Also nicht wahr, du wirst deiner Familie Ehre*

술자의 태도 역시 ‘부유하는’ 양상을 드러내거니와, 두 작품의 주인공들(한스와 싱클레어)도 모두 기성세대와 전통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machen? Und deinen Vorgesetzten folgsam sein?” 하지만 다른 한편, 기성세대의 이런 주문에 대해 순순히 “예, 당연하지요. Ja, natürlich.”(214) 라고 밖에 반응할 줄 모르는 한스 역시 스스로 불행을 초래한다. 그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당연하게” 기성세대를 따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후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요구도 문제지만, 상대방과 자신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못하는 전자의 속성도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복합적인 배경에서 사회에 “편입된 국외자”²¹⁾로서 한스의 내적 및 외적 체질, 그리고 불안정한 자기체험 방식은 주요 라이트모티프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3. 주인공의 내·외적 속성에 대한 징표로서의 핵심 라이트모티프

주인공 한스의 속성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라이트모티프로는 먼저 강물 모티프와 배 및 뗏목 모티프를 들 수 있다. 기성세대의 요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어린 시절에 그는 혼자 강에서 “자주 몇 시간씩이나 멀리 oft stundenweit”(171) 뗏목을 타며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만끽하곤 했다. 일찍부터 유난히 수영을 즐기던 그에게 강물이 기성세대로부터 떨어진 세계를 상징한다면, 그 위를 유유히 흐르는 배나 뗏목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자유를 구가하려는 그의 원초적인 자아를 함축한다. 훗날 그가 수도원학교 입학시험을 마치고 엄청난 피로감에 짓눌린 채 고향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강물에 몸을 내맡기며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런 자아라고 할 수 있다:

강가에서 그는 옷을 벗고, [...] 강물 속으로 빠르게 몸을 던졌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결을 향해 천천히 수영을 하며, 그는 최근 며칠 동안 쌓였던 땀과 두려움이 자신의 몸에서 미끄러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강물이 그의 가냘픈 몸을 식히며 감싸 안는 동안, 그의 영혼은 새로운 기분으로 아름다운 고향을 점취하였다. 그는 [...] 기분 좋은 시원함과 피곤함에 감싸인 느낌이 들었다.(181f.)²²⁾

21) H. Hahn, Störfälle, oder Probleme des integrierten Außenseiters in den pädagogischen Romanen Hermann Hesses und in Carsten Probsts Träumer. In: Amsterdamer Beiträge zur neueren Germanistik (2005), Vol. 58, S. 159-172.

22) Dort entkleidete er sich, [...] und warf sich dann mit schnellem Sturz in den Fluß.

하지만 기성세대와 ‘다른’ 세계 혹은, 원초적인 자아로 향하는 그 통로는 한스에게 이미 오래 전부터 차단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그가 기성세대의 주문에 맹목적으로 따를 때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두통 모티프이다. 그가 자연에 몸을 맡김으로써 “아직 두통도 없고 걱정도 없던 noch kein Kopfweh und keine Sorge”(171) 때는 어린 시절 뿐이고, 차츰 기성세대의 독려를 받으며 “공부에 대한 열성과 인식에 대한 갈망 Arbeitsfieber und Erkenntnisdurst”에 빠지면서 “굉장한 자부심 ein stolzes Selbstgefühl”과 함께 “물론 두통 freilich das Kopfweh”(202)도 얻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 후에 더욱 학업에 매달리며 “매우 자주 두통 so oft Kopfweh”(241)을 앓게 되었으며, 수시로 두통은 “다시 규칙 wieder die Regel”(268)이 되고 만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가 앓는 두통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하고 만다: “자신도 젊은 시절에 그런 두통에 시달렸던 시 목사는 두통으로 힘들어하는 한스를 위로했고,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문제없이 마무리 되었다.”(241)²³⁾ 물론 한스 자신도 두통의 경고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스스로 불행을 키워간다. 결국 그는 악화되는 신경증세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거니와, 낙향 후에도 잠시 마음을 빼앗기던 소녀 엠마에게 “항상 두통을 앓는다던 소년 der [Knabe], der immer Kopfweh habe”(292)으로만 기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강물, 배 및 뗏목 그리고 두통 모티프들의 뚜렷한 상징성이 드러내는 바, 자전적인 주인공 한스의 운명을 향한 작가 헤세의 아이러니는 자기아이러니이기도 할 것이다. 강물이 모든 인간의 원초적인 “고향”으로서의 모태를 상징하고, 두통은 가부장적인 세계질서에 내던져진 인간의 현실적 갈등을 암시한다면, 이것은 인간 즉, 남성 그리고 여성에 대한 헤세의 이분법적인 사고구조에서 유래한다. 그와 같은 틀 위에서 전개되는 소설 『수레바퀴』의 세대담론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원칙적으로 헤세적인 자아의 자기이해를 내포하는 문학

Langsam gegen die schwache Strömung schwimmend, fühlte er Schweiß und Angst dieser letzten Tage von sich gleiten, und während seinen schwächtigen Leib der Fluß kühlend umarmte, nahm seine Seele mit neuer Lust von der schönen Heimat Besitz. Er [...] fühlte sich von einer wohligen Kühle und Müdigkeit umfassen.

23) Hierüber tröstete ihn der Stadtpfarrer, der in jüngeren Jahren selber daran gelitten hatte, und somit war alles gut.

적 젠더담론임을 보도록 하자.

III. 문학적 젠더담론으로서의 세대담론

헤세(의 서술자)가 이해하는 “인간은 자연이 만들어낸 바 예측할 수 없는 존재, 불투명한 존재, 위험한 존재이다. 인간이란 낯선 산을 뚫고 흘러내리는 강물 줄기이자, 길과 질서가 없는 원시림이다.”(203)²⁴⁾ 이처럼 강물이 이른바 ‘원초적 대자연으로서의 어머니 Große Mutter’와 상통한다는 배경에서 보면, 한스가 그 속에서 수영하며 느끼는 “흥분되면서도 동시에 평안한 zugleich erregt und eingeschläfert”(171) 심정은 그 자신의 원초적인, 말하자면 ‘여성적인’ 자아부분과 맞닿아 있다. 가부장적인 기성세대 법칙으로서의 “길과 질서”에 상반되는 “낯선 강물 줄기”가 ‘여성적인’ 기호를 띠는 점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성의 교육방식을 묘사하는 데에서 극명해진다:

원시림이 벌목을 통해 트이고 정화되며 강제로 제한되어야 하듯이, 바로 그렇게 학교는 자연적인 인간을 꺾고 억제하며 강제로 제한해야 한다. 학교의 과제는 당국에서 인가한 원칙에 따라 인간을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으로 만들고, 그의 내면에 잠재된 특성을 일깨우는 일인 바, 그런 특성은 이어 병영에서 실시하는 면밀한 훈육에 의해 완벽하게 마무리된다.(203)²⁵⁾

이런 맥락에서 강물과 관련된 낯시 모티프는 자못 의미심장하다. 모처럼 허용된 휴식시간에 열광적으로 몰두하는 낯시는 한스에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24) Der Mensch, wie ihn die Natur erschafft, ist etwas Unberechenbares, Undurchsichtiges, Gefährliches. Er ist ein von unbekanntem Berge herbrechender Strom und ist ein Urwald ohne Weg und Ordnung.

25) Und wie ein Urwald gelichtet und gereinigt und gewaltsam eingeschränkt werden muß, so muß die Schule den natürlichen Menschen zerbrechen, besiegen und gewaltsam einschränken; ihre Aufgabe ist es, ihn nach obrigkeitlicherseits gebilligten Grundsätzen zu einem nützlichen Gliede der Gesellschaft zu machen und die Eigenschaften in ihm zu wecken, deren völlige Ausbildung alsdann die sorgfältige Zucht der Kaserne krönend beendigt.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때 그의 아버지는 가부장 중심의 세대질서를 주지시킨다: “하지만 [아비] 물고기는 잡지 않도록 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아들] 물고기들이 더 이상 없게 되니까. Na, paß nur auf, daß du den Alten nicht fangst, sonst gibt’s nachher keine Jungen mehr.”(192) 여기서 낚시는 후세대가 가부장적인 기성세대의 주도권을 벗어나 원초적인 자연과의 일체감 속에서 ‘여성적인’ 자아를 만끽하며, 동시에 ‘남성적인’ 자아의 자율성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한스의 경우, 예의 저 가부장적인 즉, ‘부자연스러운’ 세대규범으로 인해 낚시를 ‘남성적’ 주도권 내지 자율성을 둘러싼 힘겨루기의 장으로 체험하게 된다. 바로 그 곳에서 결국 그는 균형 있고 자연스러운 자기정체성 형성의 통로를 찾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Da ihm nichts daran lag”(207) 갑자기 낚시를 그만 두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여성성과 함께 ‘자신의’ 남성성을 지키거나 키우기 위해 나아갈 길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일찍부터 가부장적인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지배로 인해 ‘자신의’ 남성성을 부정당하고, 또 ‘여성성’은 아예 부재하는, 그야말로 이중으로 “기만당하고 능욕당한 어린 시절 die betrogene und vergewaltigte Kindheit”(279)을 보내야만 했던 주인공에게는 예정된 일이다. 그에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없었다. es fehlte eine Mutter”(241)는 것은 헤세의 전체 작품에서 어머니의 의미가 크게 두드러진다는 점과 매우 대조적이며, 그만큼 함축된 의미를 띤다. 더욱이 한스에게는 누이조차 없고 집안의 유일한 여성으로서 짧게 언급만 되는 늙은 가정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말하자면 이 작품에서 어머니의 (비)존재는 전혀 눈에 띄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크게 눈에 띄는 셈이다.

이처럼 철저히 ‘여성성’이 배제된 세계에서 주인공 한스는 평소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지만, 일찍부터 모성에 대한 그의 선망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그가 상급학교 입학시험을 앞둔 전날 밤, 흥분에 싸여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단잠이 전해주는 잔잔하고 어머니 같은 손결이 그의 혼란스러운 어린 가슴에 이는 파도를 평탄하게 어루만졌고, 그의 귀여운 이마에 잡힌 작은 주름들을 지워주었다.”(172)²⁶⁾ 라는 구절을 보라. 그리고 모성에 대한 꿈속에서의 무의식적인 갈망은 수도원학교 입학식에서 점차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수도원학교에 입학하는 날 어머니를 아직 곁에 두었던 사람이라면, 평생 동안 감사와 감동의 미소로 그날을 생각하게 된다. 한스 기벤라트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으며, [가족과] 이별하는 순간을 아무런 감동도 없이 넘겼다. 하지만 그는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를 슬하게 관찰할 수 있었으며, 그러면서 묘한 인상을 받게 되었다.(211)²⁷⁾

여기서 주인공의 시선에 내재된 불안정한 젠더의식은 이어 헤세적인 서술자의 시각에서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모든 아이들에게서 드러나는 바, [어머니와] 작별해야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 더욱 커진 깊은 애정과 의지하는 심정이 무엇보다 주변에 둘러선 구경꾼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대항하며 이제 싹트는 남성성의 고집스러운 측면의식과 격렬하게 싸우는 데에서 드러났다.(213)²⁸⁾

그리고 마침내 한스가 가부장적인 수도원학교에서 지낸 몇 달 뒤에 소년들의 모습이 묘사되는 장면에서는 헤세적인 서술자/주인공의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젠더의식이 확연히 우위를 차지하고 드러난다:

[아이들의] 얼굴은 점점 사라져가는 어린이의 천진난만함과 조심스럽게 과시되기 시작하는 사내다움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형태의 모습을 띠었다. 그리고 몸이 아직 성장기의 모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아이는 모세경 공부 덕분에 그나마 생긴 남자다운 잠정적인 진지함을 반듯한 이마에 드러냈다.(255f.)²⁹⁾

26) [...] die leise, mütterliche Hand des Schlummers ebnete die Wogen in seinem unruhigen Kinderherzen und löschte die kleinen Falten auf seiner hübschen Stirn.

27) Wer beim Eintritt ins Klosterseminar noch eine Mutter gehabt hat, der denkt zeitlebens an jene Tage mit Dankbarkeit und lächelnder Rührung. Hans Giebenrath war nicht in diesem Fall und kam ohne alle Rührung darüber hinweg, aber er konnte doch eine große Zahl von fremden Müttern beobachten und hatte einen sonderbaren Eindruck davon.

28) Bei allen aber lag die Furcht vor dem Abschied und das gesteigerte Gefühl der Zärtlichkeit und Anhänglichkeit in schwerem Kampf mit der Scheu vor Zuschauern und mit dem trotzigem Würdegefühl erster Männlichkeit.

29) Die Gesichter wiesen alle Schattierungen zwischen absterbender Kindlichkeit und einer zaghaft sich zu brüsten beginnenden Mannheit auf, und wessen Körper noch von den eckigen Formen der Entwicklungszeit frei war, dem hatte das Studium der Bücher Mosis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이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세계에서 주인공은 (어머니가 ‘제거된’ 조건이 유지되더라도) ‘자신의’ 남성성 내지 독자적인 젠더의식을 키워나갈 기회를 얻지 못한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옮겨간 기숙사에서 그를 ‘품어줄’ 방은 자연적인 모태를 모사하고 대체하는 전통적인 남성의 영역을 상징하고 있다. 현대 독일을 과거의 그리스 및 로마가 재현되는 곳으로 만들라는 부권적 주문 같은 숙소명칭들 “포럼, 헬라스, 아테네, 스파르타, 아크로폴리스, [...] 게르마니아 Forum, Hellas, Athen, Sparta, Akropolis, [...] Germania”(215) 등이 그러하다. 그중 바로 “헬라스”에 자리 잡은 한스에게는 기성세대의 지시에 따라 공부에 몰입하여 우등생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남성세계’에 편입하는 지름길이지만, 그럴수록 그는 ‘자신’ 즉, ‘여성성’은 물론이고 ‘남성성’과도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 가부장적인 남성성 우위의 현실에서 그는 후세대로서 하위의 ‘여성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 채 즉, ‘자신의’ 남성성을 부정한 채 계속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모방하고, 모든 ‘여성적인 것’은 낯설다며 거부해야 하는 모순을 겪기 때문이다. “엄격하고 어머니 없이 보낸 어린 시절에 그는 누군가에게 친근하게 몸을 접촉하는 재질을 잃어버렸고, 특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심취 상태에 대해 공포감을 느꼈다.”(224)³⁰⁾ 그의 친구 하일러가 그를 “한스”라는 이름으로 친근하게 부르고 그에게 입맞춤까지 하는 반면, 그는 항상 “하일러”라는 성을 부름으로써 거리감을 드러낸다는 점도 저 이중적인 자기부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이 한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부장적인 젠더의식에 점점 더 길들여진다. 그가 상급학교를 떠나 낙향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의식했던 것도 “실망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Angst vor seinem enttäuschten Vater” 즉, 자신에 대한 가부장의 기대를 “배반했다 betrogen”(272)는 자책이다. 그의 절망과 선망이 수시로 ‘다른’ 자아를 향해 가지만, 이미 그것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가 자살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에게 “짧은 편지 ein kurzer Brief”(275)를 쓰고, “매우 긴 편지 ein sehr langer”(276), 하지만 사실 상 전달될 가능성이 없는 말

wenigstens einen provisorischen Mannesernst auf die glatte Stirn verliehen.

30) Ihm war in seinen strengen, mutterlosen Knabenjahren die Gabe des Anschmiegens verkümmert, und vor allem äußerlich Enthusiastischen hatte er ein Grauen.

은 ‘남성적인’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여성적’이기도 한) 자아 Alter Ego 하일러에게 남기는 것을 보라. 그가 기계공이 되고나서도 누구보다 하일러를 생각하며, “하일러가 이런 변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할까? Was würde Heilner dazu sagen?”(309) 라며 우려하는 장면은 강한 ‘남성성’과 함께 ‘여성성’을 향한 그의 선망, 하지만 구현할 수 없기에 이미 교착 상태에 빠진 그의 젠더의식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부자연스럽고 왜곡된 대인관계 및 자기이해 속에서 한스의 “기만 당하고 [부녀자처럼] 능욕 당했던 어린 시절의 체험이 그의 내면에서 마치 오랫동안 막혔던 샘물처럼 불쑥 터져 오르게 될 die betrogene und vergewaltigte Kindheit brach wie eine lang gehemmte Quelle in ihm auf”(279) 때에도, 말하자면 그가 ‘스스로의’ 여성성 및 남성성을 시험해보려는 충동에 잠시나마 사로잡히게 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수밖에 없다. 가령 그가 어린 시절에 설레는 심정으로 잠시 훑쳐본 적이 있던 엠마가 성장하여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남성적으로’ 편향된 젠더의식은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만남을 불가능하게 한다:

호기심에 찬 시선으로 그는 몇 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당시에는 그녀가 가냘픈 몸매를 지닌 무척 고은 소녀였지만, 이제는 성장하였고, 무례한 데가 있는 몸동작에다 조숙하고 최신 유행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머리가 그녀를 완전히 흉하게 만들어 버렸다.(277)³¹⁾

결국 ‘여성’과도 완전히 단절된 한스는 그와 달리 “연애에 대해 너무나 경험이 많은 in Liebessachen Bescheid [wissen]”(305) (또 다른) 엠마와의 입맞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격렬하고 ‘비 여성적인’ 입맞춤 공세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잠자리까지 따라오는 격심한 심리적 동요는 위협받은 ‘남성성’에 대한 한스의 우려를 드러낸다: “그가 눈을 감을라치면,

31) Neugierig sah er ihr ein paarmal nach, aber sie gefiel ihm nicht mehr so gut wie früher. Damals war sie ein zartgliedriges, sehr feines Mädchen gewesen, jetzt war sie gewachsen, hatte eckige Bewegungen und trug eine unkindliche, moderne Frisur, die sie vollends ganz entstellte.

그 소녀의 입이 여전히 그의 입에 매달려 그의 영혼을 완전히 빨아 마시고, 괴롭기 짝이 없는 열기로 그의 몸을 달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302)³²⁾ 이처럼 ‘여성’에 대한 공포에 싸인 한스는 기껏해야 꿈의 무의식 속에서나 쾌락을 실험해볼 수 있을 뿐이다. “그는 두려울 만큼 깊은 어둠 속에 서있었는데, 주변을 더듬으며 엠마의 팔을 잡자, 그녀가 그를 포옹하였으며, 둘은 함께 따뜻하고 깊은 물살 속으로 가라앉았다.”(302)³³⁾ 하지만 그것조차도 잠시일 뿐, 바로 다음 순간에 도덕적인 가부장으로서 플라이크가 나타나고, 플라이크는 다시금 자신만의 젠더의식을 가진 친구 헤르만 하일너로 바뀐다. 한스의 욕망은 (친구에게 투사된) 현실성이 없는 자신의 ‘다른’ 자아를 향하며 그의 가장 비극적인 자아분열을 예고하고 있다.

치명적인 자아분열의 순간은 한스가 어릴 적 친구이자 도제로 승급한 아우구스트의 자축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불현듯 찾아온다. 처음 한스의 생각은 그 모임이 “홀륭하고 남자다운 schön und männlich”(322) 데가 있었다는 데에 머물면서 안정을 찾는 듯이 보인다. 것처럼 ‘남성적인’ 기성세계에 가까운 기능공으로서 “노동의 찬가 den Hymnus der Arbeit” 혹은, “뭔가 감동적이고 기분 좋게 도취시키는 것 etwas Ergreifendes und angenehm Berauschendes”을 체험하면서, 그는 잠시나마 “자신의 보잘 것 없는 인격과 자신의 사소한 삶이 [남성 세계의] 거대한 리듬에 적응된 seine kleine Person und sein kleines Leben einem großem Rhythmus eingefügt”(313) 것처럼 느낀다. 기능공들의 세계에서도 ‘남성성’의 등급이 있는데, 직공들 중에서 금속공들이 “가장 신분이 높은 조합 die vornehmste Zunft”을 이루고 있거니와 “그 가장 선두에 있는 기계공 obenan die Mechaniker”으로서 한스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한스는 “뭔가 제 집처럼 편안한 etwas Anheimelndes”(316) 느낌을 받거니와, “기계공들의 신분에 속한다는 사실에 기뻐다. [Er] freute sich, zu diesen zu gehören.”(317) 라고 할 만큼 ‘우월한 남성세계’의 ‘거대한 리듬’에 맞추고자 애쓴다. 그런 세계 속에서 기계공들의 “전통적이고 오래 된 모험 die traditionellen

32) Sobald er die Augen zutut, war's ihm, als hinge der Mund des Mädchens noch an seinem, söge ihm die Seele aus und erfülle ihn mit peinigender Hitze.

33) Er stand in einer ängstlich tiefen Finsternis, um sich tastend griff er Emmas Arm, sie umfaßte ihn, und sie sanken zusammen in langsamem Fall in eine warme, tiefe Flut.

alten Abenteuer”(318)에 관한 이야기들은 “오래되고 훌륭한 alt und gut” 것으로 써 그들 직업군의 “명예 Ehre”(319)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스는 “술을 마시고, 정치를 논하며, 담배를 피우고, 결혼을 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흉내 내어 전하는”(323)³⁴⁾ 술한 모험담과 함께, “단골손님들끼리 전하는 모든 직업생활의 오래되고 신성한 상속물들을 alte ehrwürdige Erbstücke jedes Stammtischphilisteriums”(323) 이어가는 삶에 완전히 귀의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저급한 남성성’이 지배하는 젊은 기능공의 전통을 가부장적인 기성사회는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남성’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이 한스를 몰락시키고 만다:

그는 자신이 더럽혀지고 능욕당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어떻게 집에 가야할 것인가?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일 그는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그는 너무나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비참한 느낌이 든 나머지, 이제는 영원히 휴식을 하고, 영면하며 부끄러워해야 할 것 같았다.(326)³⁵⁾

바로 다음 순간 한스가 느끼는 “머리와 눈 Kopf und Augen”(326)의 심한 통증에서 그의 나약한 ‘남성성’ 내지 회복될 수 없이 분열된 자아로 인한 죽음의 신호를 읽을 수 있다. 두통의 의미가 단순히 기성세대의 억압으로 인한 고통만이 아니라 기존의 젠더모델에 대한 거부와 모방이라는 이중성을 내포한다면, 곧 이어 한스가 강물에 빠져 죽음을 맞는 것도 이중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비교적 원래의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지내던 시절에 그가 뗏목을 타며 “흥분되면서도 동시에 평안한 zugleich erregt und eingeschläfert”(171) 느낌을 즐겼듯이, 아버지의 세계를 떠나 강물 속에서 찾은 죽음은 일단 어머니의 품안 즉, 원초적인 자아의 세계로 돌아가려는 시도로 보인다. 한스의 장례식에 이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언급되는 밝은 빛의 강물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34) [...] von den jungen Leuten nachgeahmt so gut wie Trinken, Politisieren, Rauchen, Heiraten und Sterben [...]

35) Er kam sich beschmutzt und geschändet vor. Wie sollte er nach Hause kommen? Was sollte er dem Vater sagen? Und was sollte morgen aus ihm werden? Er kam sich so gebrochen und elend vor, als müsse er nun eine Ewigkeit ruhen, schlafen, sich schämen.

“작은 도시 위로는 명쾌하게 파란 하늘이 펼쳐있었고, 계곡에서는 강물이 반짝였으며, 전나무로 덮인 산은 부드럽고 애뜻하게 멀리까지 푸른빛으로 퍼졌다.”(329)³⁶⁾

하지만 한스의 죽음은 어머니의 세계에 완전히 귀의했음을 의미하지는 않거니와, 그 ‘자신의’ 젠더의식이 실현되었음을 말해주지도 않는다. 가부장적인 기성세대의 편향적인 체제 속에서 애초에 어머니의 ‘다른’ 세계와의 연결 고리가 파괴되었고, 처음으로 접하게 된 여성 엠마와의 관계 역시 (그 자신의 미성숙한 젠더의식으로 인해) 회복될 길이 없다. 다시 찾은 고향에서 그는 여전히 원시적이고 마적인 물결 내지 ‘여성성’으로 상징화된 엠마 앞에서 몹시 불안정한 “작은 배”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의 가볍고 작은 배는 첫 번째의 난파 위험을 간신히 벗어났으나, 이제 다시 일어나는 폭풍의 힘에 휘말리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끝없는 심해와 어마어마한 압초결로 빠져들었다. 그런 압초를 벗어나려면 아무리 안내를 잘 받은 젊은이라도 [가부장적인] 영도자가 소용없고,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날 길과 구조 방안을 찾아야 한다.(295)³⁷⁾

이 소설의 세대담론이 결국 문학적 젠더담론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수도원 학교 교장과 하일리의 갈등, 이른바 “상징적인 권력에 대한 투쟁 Kampf um symbolische Macht”³⁸⁾은 ‘남성성’의 주도권 싸움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남성성’이야말로 가부장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정당화된 상징권력’(브르디외)의 정수이기 때문이다. 기성세대의 교장은 후세대의 어린 학생 하일리를 “자신의 오래된 적 seinen alten Feind”(265)으로, 또한 그의 탈출을 “반항적인 속성과

36) Über dem Städtchen war ein fröhlich blauer Himmel gespannt, im Tal glitzerte der Fluß, die Tannenberge blauten weich und sehnlich in die Weite.

37) Sein leichtes Schiffelein, knapp dem ersten Schiffbruch entronnen, war nun in die Gewalt neuer Stürme und in die Nähe wartender Untiefen und halsbrechender Klippen geraten, durch welche auch die bestgeleitete Jugend keinen Führer hat, sondern aus eigenen Kräften Weg und Rettung finden muß.

38) K. Marquardt, Zur sozialen Logik literarischer Produktion: die Bildungskritik im Frühwerk von Thomas Mann, Heinrich Mann und Hermann Hesse als Kampf um symbolische Macht. Würzburg 1997.

타락이 특히 드러나는 경우 diesen außerordentlichen Fall von Widersetzlichkeit und Entartung”(267)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과 권위 seine Macht und Autorität”(251)를 정당화하는 위계적인 가부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기에 그는 제자 한스의 낙오 자체에 대한 걱정보다 자신의 교육 ‘업적’을 우려하며, “또 다시 발생한 그 불행 von diesem neuen Unglück”(271)은 상부기관에 보고하지 못한다. 이처럼 자신보다 더 우월한 힘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는 교장은 잠시 양심의 가책이 이는 순간에도 “용감하고 도덕적으로 강한 남성으로서 als einem tapferen und sittlich starken Manne”(271)의 젠더의식을 다짐으로써 자기성찰의 기회를 철저히 외면한다. 하일리 역시 기성세대의 “명령과 금지보다 자신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daß sein Wille stärker war als Befehle und Verbote”(266) 보여주기 위해 수도원을 탈출하였으나, 가부장적인 힘에 대한 도전을 감행하며 새장에서 “빠져나와 날아 가버린 그 독수리 entflohenen Adler”(267)는 끝내 잡히고 만다. 가부장적인 지배자 사회에서 피 지배자일 수밖에 없는 청소년이 스스로도 자신을 (잠정적인) 지배자로 인식하는 한, 기성세대의 가부장적이자 ‘남성적인’ 젠더의식을 거부함과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IV. 수레바퀴의 의미

소설 제목에도 명시된 수레바퀴 모티프는 작품주제와 관련하여 큰 의미를 함축한다. 그것은 외적으로 비교적 뚜렷이 드러나는 의미와 내적으로 잠재된 의미로 규명될 수 있다. 우선 수도원학교 교장이 한스에게 던지는 경고 즉, “시원찮게 흐지부지하며 지내지 말게. 그랬다간 수레바퀴 밑으로 빠지고 마네. Nur nicht matt werden, sonst kommt man unters Rad.”(252) 라는 말은 분명 기성세대가 규정해 놓은 엄격한 삶의 흐름과 제어 기제를 가리킨다. 여기서 요구되는 인간은 기존의 세계질서에 내맡겨진 채 순응해야하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이에 대한 주인공 한스의 반응 및 그 의미는 그가 기계공으로서 해야 하는 작업 즉, 미리 틀에 부어 찍어낸 “주철제의 작은 톱니바퀴 ein gußeisernes Zahnradchen”(311)를 끈질기게 줄로 같고 닦아야하는 일에 상징화되어 있다.

숙명적으로 시간에 내맡겨진 세계를 상징하는 “탐시계 Turmuhr”(313)의 핵심 부속품으로서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일은 이중적인 의미를 띤다. 한편으로 한스는 삶의 필연적인 흐름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한편으로 그 흐름을 조정하기 위해 스스로 톱니의 간격을 다듬을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그의 자살은 그가 그런 기회를 스스로 잡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그는 기성세대의 틀로 만들어지고, 또 스스로도 그런 틀 내지 규범에 따라 다듬은 현실적 자아의 바퀴 밑에 빠져 버린 (자기)희생자이자 낙오자가 된 셈이다. 한스의 성 기벤라트 Giebenrath에 ‘라트 Rad’ 즉, ‘바퀴’와 동일한 음가를 가진 ‘라트 Rath’가 들어 있는 것도 그의 문제가 전래되었으되, 그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의 문제이기도 함을 시사한다.

작품 내적으로, 결국 한스가 일찍부터 내면화한 가부장적인 (기성세대의) 젠더의식이 문제라는 점은 다른 바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친구 아우구스트와 함께 직접 만들어서 물가에서 가지고 놀던 “나무로 만든 작은 물바퀴 *das kleine, hölzerne Wasserrädchen*”를 입학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스스로 “완전히 vollends” 부숴버린다: “이까짓 것은 없어져 버리라지. 이걸 갖고 놀던 때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고 끝이 난 걸. Fort mit dem Zeug, das war ja alles schon lange aus und vorbei.”(170) 가부장적인 기성세대의 주문에 따라 열등한 ‘자신의’ 바퀴를 포기한 그는 엠마의 질주하듯 저돌적이고 강력한 ‘애무의 바퀴’에 거의 속수무책으로 즉, “마차 바퀴에 스친 길가의 달팽이처럼 *wie eine vom Wagenrad gestreifte Wegschnecke*”(292) 짓밟혀버릴 수밖에 없다. 소년 한스는 가부장 중심의 기성세대가 정해놓은 ‘남성화’ 규범이 힘없는 신세대에게 요구되는 목적이자, 동시에 신세대를 억누르는 수단이라는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타의적이자 자의적으로 유지되는 젠더의식의 모순이 존재하는 한, 한편으로 ‘남성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음으로써 비교적 순탄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한스의 ‘여성적인’ 향수, 또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화신으로 나타나는 엠마에 대한 ‘남성적인’ 욕망은 결코 “결합시킬 수 없는 *nicht vereinbar*”(303)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한스가 불안스럽게 자신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다. *Hans war ruhelos vor sich selber auf der Flucht.*”(310) 라는 서술은 어쩌면 당시 자전적인 작가 헤세의 불안정한 젠더의식을 내비치는 지도 모른다. 주인공 한스

가 다소간 관심을 보이는 두 명의 여성 모두에게 전형적인 여자이름 엠마 Emma를 부여한 것은 낯설고 위험하며 비개성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이라는 (헤세의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관을 반영한다. 것처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여자’ 내지 ‘강력한 여자’라는 의미의 엠마에 대한 부정은 궁극적으로 작가의 젠더 의식이 ‘남성성’ 및 ‘여성성’에 대한 선망과 불안이라는 이중적 사고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V. 전망

한스 기벤라트 같은 유형의 인물은 20세기 전환기의 여러 작품에서도 자주 관찰된다. “육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몰락의 징후로서의 지적 능력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von Hypertrophie der Intelligenz als Symptom einer einsetzender Degeneration”(162) 한스는 분명 동시대의 전형인 “데카당스 Dekadenz”³⁹⁾ 유형이다. 바로 그 점에서 그는 비슷한 시기에 토마스 만이 4대에 걸쳐 서술한 전통적인 세대소설 『부텐부르크 일가 Buddenbrooks』(1901)의 마지막 세대인 어린 하노와 너무나 닮아 있다. 섬세하고 이지적인 (예술)감각과 연약한 몸으로 가부장적인 가계를 이어갈 의지가 전혀 없는 하노처럼, 한스도 “가늘고 갈색으로 탄 목 위로 이지적인 얼굴과 뛰어난 눈과 함께 고운 머리가 자유롭고 품위 있게 드러나는”(193)⁴⁰⁾ ‘여성적인’ 청소년이다. 게다가 한스와 하노가 ‘요하네스 Johannes’에서 파생된 동일한 이름이라는 점에서 두 작품의 주인공들이 드러내는 동질성이 더욱 눈에 띄지만, 이 자리에서는 더 상세히 논의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보다 한스가 헤르만 하일러와 함께 헤르만 헤세의 서로 다른 자아의 일부 분이라면, 헤세가 자기 이름의 약자 HH를 주인공 한스보다⁴¹⁾ 하일러에게 부

39) A. Solbach, *Dezisionistisches Mitleid: Dekadenz und Satire in Hermann Hesses Unterm Rad*. In: *Amsterdamer Beiträge zur neueren Germanistik* (2005), Vol. 58, S. 67-82.

40) Auf dem dünnen, gebräunten Halse saß frei und elegant der feine Kopf mit dem geistigen Gesicht und den überlegenen Augen.

41) 한스는 실제로 자살로써 삶을 마감한 헤세의 동생 이름이기도 하다.

여했다는 점은 두 가지 면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런 명명은 하일러처럼 ‘남성성’ 및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여성성’이 부여된 인물에 대해 헤세가 은연중에 드러내는 더 가까운 거리를, 또 한스처럼 죽음에 맡겨짐으로써 부정된 ‘여성적인’ 인물에 대한 더 먼 거리를 암시한다. 이 작품에서 전통적 젠더담론에 대한 작가의 비판 내지 자기성찰적인 젠더의식을 논할 수 있다면, 그 자신의 의식이 전통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찍이 예수가 제자들을 향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테 26:41)라고 했다는 말을 연상시키는 데카당스적인 자아분열 혹은, 세기말에 급격하게 늘어나던 청소년 자살문제는⁴²⁾ 지난 시대 및 타 문화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최근 한국에서도 세대 간의 소통문제와 젠더문제는 교육 현장은 물론이고 여러 분야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설 『수레바퀴 밑에서』의 세대담론과 젠더담론이 20세기 초 독일의 상황을 넘어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최근의 세대연구는⁴³⁾ 물론이고, 융합학문 차원의 비교문학·문화 분석에서도⁴⁴⁾ 헤세의 문학적 세대담론 내지 젠더담론은 더욱 다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륵옥: 성 담론 위에 꽃핀 「황금의 20년대」 및 그 전·후시기 - 젠더학적 시각에서. In:

-
- 42) Vgl. J. Noob, Der Schülerselbstmord in der deutschen Literatur um die Jahrhundertwende. Heidelberg 1998.
- 43) 예로 K. Lüscher/ F. Schultheis (Hg.), Generationenbeziehungen in “postmodernen” Gesellschaften. Konstanz 1993.
- 44) 최근 독일문학과 (한국의 경우를 포함한) 청소년의 심리 치유를 접목한 연구의 예로서, 채연숙/조희주: 청소년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본 헤세의 『페터 카멘친트』와 『수레바퀴 아래서』, 헤세연구 제 31 집 (2014), 49-75 면; 독한 비교문학적 연구로서는, 김이삼: 독문학 : 권력의 허구성과 소시민적 속성, 그리고 청소년기의 자아감정에 대한 고찰 -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독어교육 (2012), Vol. 53, 267-290 면.

독일어문학(2001), 제 16 집, 9권 3호, S. 25-50.

김석도: 헤르만 헤세의 교육관 - 학교 교육에 대한 그의 부정적 시각과 교사상을 중심으로 In: 인문논총 (1990), Vol. 24, 73-94 면.

김이섭: 독문학: 권력의 허구성과 소시민적 속성, 그리고 청소년기의 자아감정에 대한 고찰 -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독어교육 (2012), Vol. 53, 267-290 면.

안진태: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에서 학교와 사회 비판. In: 독일문학(2007), Vol. 101, 127-144 면.

유라이트, 올리케 · 빌트, 미하엘 엠크: ‘세대’란 무엇인가? 카를 만하임 이후 세대담론의 주제들. 한독젠더문화연구회(박희경 외) 옮김, 한울 2014.

은정윤: 신역사주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학교와의 불화. In: 헤세연구 (2007), Vol. 18, 25-48 면.

채연숙/조희주: 청소년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본 헤세의 『페터 카멘친트』와 『수레바퀴 아래서』. In: 헤세연구 제 31 집 (2014), 49-75 면.

Benninghaus, Christina: Das Geschlecht der Generation. Zum Zusammenhang von Generationalität und Männlichkeit um 1930. In: U. Jureit/ M. Wildt (Hrsg.), Generationen. Zur Relevanz eines wissenschaftlichen Grundbegriffs. Hamburg 2005, S. 127-158.

Gansel, Carsten: “Ach, ich bin so müde” – Gesellschaftliche Modernisierung und Adoleszenzdarstellung in Hermann Hesses *Unterm Rad*. In: Neuer Mensch und Kollektive Identität in der Kommunikationsgesellschaft (2009), S. 25-46.

Hahn, Hans: Störfälle, oder Probleme des integrierten Außenseiters in den pädagogischen Romanen Hermann Hesses und in Carsten Probsts Träumer. In: Amsterdamer Beiträge zur neueren Germanistik (2005), Vol. 58, S. 159-172.

Hesse, Hermann: *Unterm Rad*. in: Ders., Die Romane und die großen Erzählungen. Erster Band, Jubiläumsausgabe zum hundertsten Geburtstag von Hermann Hesse. Frankfurt/M. 1986, S. 159-329.

Jureit, Ulike/ Wildt, Michael (Hrsg.): Generationen. Zur Relevanz eines wissenschaftlichen Grundbegriffs. Hamburg 2005.

Jureit, Ulike: Generation, Generationalität, Generationenforschung. In: Docupedia-Zeitgeschichte, 11.2.2010, <http://docupedia.de/zg/Generation>.

Klaehr, Alexander: Wie Schüler unter die Räder kommen. Zur Aktualität der Schulkritik in Hermann Hesses Roman *Unterm Rad*. In: Kritische Ausgabe, Nr. 18 (Familie), Bonn 2010, S. 76-79.

- Kraft, Andreas/ Weißhaupt, Mark (Hrsg.): Generationen: Erfahrung - Erzählung - Identität. Konstanz 2009.
- Lauer, Gerhard (Hrsg.): Literaturwissenschaftliche Beiträge zur Generationsforschung. Göttingen 2010.
- Lüscher, Kurt/ Schultheis, Franz (Hrsg.): Generationenbeziehungen in “postmodernen” Gesellschaften. Konstanz 1993.
- Mannheim, Karl: Das Problem der Generationen. In: Ders., Wissenssoziologie, hrsg. v. Kurt H. Wolff. Neuwied 1964[1928], S. 509-565.
- Marquardt, Katrin: Zur sozialen Logik literarischer Produktion: die Bildungskritik im Frühwerk von Thomas Mann, Heinrich Mann und Hermann Hesse als Kampf um symbolische Macht. Würzburg 1997.
- Mommsen, Hans: Generationenkonflikt und politische Entwicklung in der Weimarer Republik. In: Jürgen Reulecke (Hrsg.), Generationalität und Lebensgeschichte im 20. Jahrhundert. München 2003, S. 115-126.
- Noob, Joachim: Der Schülersebstmord in der deutschen Literatur um die Jahrhundertwende. Heidelberg 1998.
- Parnes, Ohad/ Vedder, Ulrike/ Weigel, Sigrid (Hrsg.): Generation. Zur Genealogie des Konzepts – Konzepte von Genealogie. Paderborn 2005.
- Solbach, Andeas: Dezionistisches Mitleid: Dekadenz und Satire in Hermann Hesses *Unterm Rad*. In: Amsterdamer Beiträge zur neueren Germanistik (2005), Vol. 58, S. 67-82.
- Weigel, Sigrid: Generation, Genealogie, Geschlecht. Zur Geschichte des Generationskonzepts und seiner wissenschaftlichen Konzeptionalisierung seit Ende des 18. Jahrhunderts. In: Lutz Musner/ Gotthart Wunberg (Hrsg.), Kulturwissenschaften. Forschung – Praxis – Positionen. Wien 2002, S. 161-190.

Zusammenfassung

Generationsdiskurs als Gender-Diskurs in Hermann Hesses Roman *Unterm Rad*

Kim, Youn-Ock (Sungshin Frauen Uni)

Die Generationsproblematik ist zweifelsohne eine feste Größe in der Menschheitsgeschichte und ihre Aktualität lässt sich noch heute kaum bestreiten: Eine Vielzahl älterer und neuerer fächerübergreifenden Publikationen in diesem Bereich spricht für sich selbst. Auch die Literatur thematisiert seit eh und je - direkt oder indirekt - die Generationenfrage. Hermann Hesses Roman *Unterm Rad* etwa, welcher noch heute als ein - insbesondere von Jugendlichen und wohl nicht nur von ihnen - vielgelesenes Werk gilt, ist ein Paradebeispiel dafür.

Der vorliegende Aufsatz untersucht das 1906 erschienene Werk Hesses unter genderorientierten Aspekten und kommt zur Schlußfolgerung, dass sich der dargestellte Generationsdiskurs bei Hesse als ein literarischer Gender-Diskurs erweist. Die Figurenkonstellation unterliegt eindeutig geschlechtlich konnotierten Rollenmustern. Die Hauptfigur Hans Giebenrath, mutterlos und von seinen ausschließlich männlichen Erziehern paradoxerweise sowohl zu einer männlich-geschlechtsspezifischen Nachfolge als auch in eine unterlegene, 'weibliche' Position gedrängt, ist bemüht, seine "Männlichkeit" unter Beweis zu stellen. Seine Anstrengungen scheitern jedoch, da er sich an normativ-patriarchalen Männlichkeitsentwürfen der älteren Generation orientiert, ohne seine Ambivalenz in der Beziehung zu ihnen bzw. zum 'Weiblichen' wahrzunehmen.

[주제어] 헤르만 헤세, 수레바퀴 밑에서, 세대담론, 젠더담론

[Schlüsselbegriffe] Hermann Hesse, Unterm Rad, Generationsdiskurs, Gender-Diskurs

[필자 E-Mail] yokim@sungshin.ac.kr

논문 투고일: 2014. 10. 30. 논문 심사일: 2014. 11. 20. 게재 확정일: 2014. 12. 12.